*빨간색으로 표시 한 부분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적어 놓았으니 다시 들어보세요.

13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 조성웅 목사

오늘은 11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교훈이 됩니다.

오늘의 중심인물은 롯이지만, 하지만 그 롯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해볼 때 우리에게 더욱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도 오늘 큰 교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나안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했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언제나 그 삶을 다 산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또 그 삶 가운데 많은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그의 육신의 안일함을 그대로 내어 비춰 주고 있습니다.(1분45초)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뿌리내리고 살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실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키고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Subió, pues, Abram de Egipto hacia el Neguev, él y su mujer, con todo lo que tenía, y con él Lot

(2)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Y Abram era riquísimo en ganado, en plata y en oro.

(3)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Y volvió por sus jornadas desde el Neguev hacia Bet-el, hasta el lugar donde había estado antes su tienda entre Bet-el y Hai,

(4)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al lugar del altar que había hecho allí antes; e invocó allí Abram el nombre de Jehová.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은 그가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스스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곳으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절됐던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잠시 그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 살 때도 있으나 그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역사가 씌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은 후에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시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Vuélveme el gozo de tu salvación, Y espíritu noble me sustente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

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단을 쌓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그들은 이야기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면 교제에 나오겠던, 나오겠노라고.

물론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첫사랑으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교제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의 길로 교제가 시작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롯은 다시 단을 쌓았다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든지 라는 그러한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함께 갔고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4)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Pero tengo contra ti, que has dejado tu primer amor.

(5)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Recuerda, por tanto, de dónde has caído, y arrepiéntete, y haz las primeras obras; pues si no, vendré pronto a ti, y quitaré tu candelero de su lugar, si no te hubieres arrepentido.

주님께서는 에베소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음을 책망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야 됨을 더욱 생각해보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첫 사랑이 퇴색되어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땅에서 가나안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겼죠?

창세기 13장 5절부터 다시 보시면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También Lot, que andaba con Abram, tenía ovejas, vacas y tiendas.

(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Y) la tierra no era suficiente para que habitasen juntos, pues sus posesiones eran muchas, y no podían morar en un mismo lugar.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Y hubo contienda entre los pastores del ganado de Abram y los pastores del ganado de Lot; y el cananeo y el ferezeo habitaban entonces en la tierra.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Entonces Abram dijo a Lot: No haya ahora altercado entre nosotros dos, entre mis pastores y los tuyos, porque somos hermanos.

큰 문제가 생겼는데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축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구원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손해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Andarán dos juntos, si no estuvieren de acuerdo?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는 동행할 수 없죠?

아브라함과 롯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틈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동일한 고민을(37분13초)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기 시작됐고 또한 그들의 갈 바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했죠?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니라 떠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He aquí que yo establezco mi pacto con vosotros, y con vuestros descendientes después de vosotros;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Reconócelo en todos tus caminos, Y él enderezará tus veredas.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삶은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 말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Encomienda a Jehová tus obras, Y tus pensamientos serán afirmados.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기에 갈라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롯, 롯은 그 말을 듣고 옳다 됐다 싶어서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써 자기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Y alzó Lot sus ojos, y vio toda la llanura del Jordán, que toda ella era de riego, como el huerto de Jehová, como la tierra de Egipto en la dirección de Zoar, antes que destruyese Jehová a Sodoma y a Gomorra.

롯은 어디에서도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든지 자기의 행사를 여호와께 의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눈을 들었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운데서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좇아 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롯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고 주님의 인도하심 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었다라고 했죠?

판단의 근거가 믿음과는 무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있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물, 음, 함락시키고 그다음 전투는 무슨 성이었죠?

아이성이었죠?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왜 범죄하였는가? 봤더니요,

여기 잡으시고 또 여호수아 7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Pues vi entre los despojos un manto babilónico muy bueno, y doscientos siclos de plata, y un lingote de oro de peso de cincuenta siclos, lo cual codicié y tomé; y he aquí que está escondido bajo tierra en medio de mi tienda, y el dinero debajo de ello.

그랬죠?

그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면요 마음이 가게 마련이죠?

눈에 보이니까 탐이 나고, 탐이 나니까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찬양도 있죠?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들에게만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의 눈을 의지하는 그것.

그는 요단,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물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살만 하구나”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넉넉한 요단 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근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갔던 곳이 애굽이었죠?

애굽은 그 당시 문화의 중심이었고 나일강으로 인한, 인해서 그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고 삶이 좋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애굽을 경험했던 롯이 그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애굽같다라는 것은 “야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소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롯이 꼭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또 물이 넉넉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렸으며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이생의 자랑을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 판단의 근거가 전혀 달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이라는 그 뜻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음란했던 도시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죠?

영어로 sodomy라는 뜻은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sodomite라고 합니다.

죄악이 충만했던 그 소돔,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로 롯은 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면 성적인 죄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성에 대한 죄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적인 죄 지을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소돔은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물질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 짓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 죄악 된 세상을 동경했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주님과 두 천사가 있었죠?

그 중에 그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 갔습니다.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소돔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나, 남녀노소 무론하고 다 달려봤고 그들은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어두운 모, 어두운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며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Ningún varón se llegue a parienta próxima alguna, para descubrir su desnudez. Yo Jehová.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No te echarás con varón como con mujer; es abominación.

(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가,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Ni con ningún animal tendrás ayuntamiento amancillándote con él, ni mujer alguna se pondrá delante de animal para ayuntarse con él; es perversión.

29절

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Porque cualquiera que hiciere alguna de todas estas abominaciones, las personas que las hicieren serán cortadas de entre su pueblo.

이와 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이 바로 소돔성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 죄 가운데서 이 헤매고 있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A.D.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 옆에 있는 베수비오스, 베수비오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 전 시내가 화산재에 덮이게 됩니다.

약 2만여 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짐과 동시에 그 재로 인해서 2천명이 한꺼번에 덮여 버렸어요.

그리고 1만 8천여 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닷가로 막 뛰어 갔어요.

그리고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모두 구조선을 타고 막 구조가 되려던 참에 갑작스럽게 그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폼페이를 덮었던 그, 이 온갖 독한 가스들이요 그 배를 통해 돌진했습니다.

바람이 바뀌더니 그 모든 그 연기를 해안 쪽으로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던 거에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왔던 배나 도망쳤던 그 1만 8천여 명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그대로 질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소, 그 폼페이는 죽음의 도시가 됐고 완전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폼페이를 개발 다시 발굴을 하고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 되고 육신으로 죄를 짓는 그 소돔으로 롯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악 가운데서 거하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으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있고 그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징계하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롯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 때문에 소돔까지 왔죠?

하나님은 롯이 가장 마음 두고 있었던 그 재물을 한순간에 쳐버리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Y tomaron toda la riqueza de Sodoma y de Gomorra, y todas sus provisiones, y se fueron.

(12)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Tomaron también a Lot, hijo del hermano de Abram, que moraba en Sodoma, y sus bienes, y se fueron.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하심이 이렇습니다.

함께 연합군과 그리고 시날왕, 엘라왕 등과 같은 4개의 연합국이 그 큰 북유럽세력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롯이 있었던 소돔의 왕의 연합군이 패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예고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결코 우연함이 없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롯은 사로잡혀 갔고 그의 모든 재물도 노략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롯의 마음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세상 다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기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그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뺏겨갔고 자기도 전쟁의 포로가 됐습니다.

전쟁 포로라는 것은 참 비참하죠?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한 포로들은 잡혀가서 주로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시나 그 롯을 구출해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 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 있었느냐?

만약에 제가 롯이었다면 정말 반성이 많이 됐을 거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소돔을 떠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롯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 소돔성에 갔고, 소돔의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께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도 가볍게 여겼고 다시 죄악 된 세상으로 흘러갔던 정말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쓸모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소돔성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그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나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곳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그것도 지체하고 있을 때 그냥 손을 잡고 끌어냈죠?

그것도 그의 부인은 소돔을 다시 무너, 무너진 소돔을 보면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만 했어도 그는 믿음의 대열에 동참했을 겁니다.

이처럼 비참해 지지는 않았을 거에요.

롯의 결과는요, 결국은 그의 두 딸과 동침하고 모압과 암몬의 자, 조상이 됩니다.

그들의 후손은 끝까지 부끄러운 민족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롯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롯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자, 롯은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영적인 전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싸움은 힘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며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신해야하며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신하고 있었으며 깨어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날 줄은 몰랐지만 그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4)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 십 팔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Oyó Abram que su pariente estaba prisionero, y armó a sus criados, los nacidos en su casa, trescientos dieciocho, y los siguió hasta Dan.

(15)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Y cayó sobre ellos de noche, él y sus siervos, y les atacó, y les fue siguiendo hasta Hoba al norte de Damasco.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 왔더라
Y recobró todos los bienes, y también a Lot su pariente y sus bienes, y a las mujeres y demás gente.

아브라함은 준비 된 사람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 있었다, 있었다라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투 싸움은요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쫓아가서 싸워야죠?

아브라함은 호바까지 쫓아갔고 그리고 호바는 다메섹 좌편, 그 꽤 먼 거리 다마스커스까지 갔으니깐요 꽤 먼 거리까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찾아 왔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요 대충 싸움하는 흉내만 내는 전투가 아닙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꺼내었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진 다윗은 골리앗도 기꺼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항상 깨어서 근신한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싸움에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도 실수를 했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준비했고, 영적인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모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싸움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누가 맞아 주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Entonces Melquisedec, rey de Salem y sacerdote del Dios Altísimo, sacó pan y vino;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사장인 그분, 멜기세덱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전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 조카를 전쟁에서 이렇게 구해내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싸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싸움에 주님께서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전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싸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가운데서 그 영광스럽게 맞아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물론 요즘에는 그 축하행렬이 조금 그 축하행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정말 그럴 때도 있죠? 그냥 그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수를 쳐주며 환호를 해주며 마지막에는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잘했다고 꽃목걸이도 걸어주고 악수도 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싸움 끝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려, 되돌려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에 승리는 바로 주님의 것이었다 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창14:20)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y bendito sea el Dios Altísimo, que entregó tus enemigos en tu mano. Y le dio

Abram los diezmos de todo.

실은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노략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승리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주님은 항상 함께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승리가운데 우리를 영광으로써 맞아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롯을 구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롯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이제 구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한 롯의 모습을 교훈 받으라고 하십니다.

롯의 모습은 구원을 얻되 볼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Si la obra de alguno se quemare, él sufrirá pérdida, si bien él mismo será salvo, aunque así como por fuego.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 터만 남고 짚으로 또 나무로 지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

롯은 구원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을 왜 이렇게 살펴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고 해서 주님과의 개별적인 만남, 주님과의 개별적인 교제를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혹시, 혹시 롯처럼 그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준비하고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나타내기 보다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대로 그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지켜야만 되겠,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준비한 군대를 가지고 싸웠듯이 또한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듯이 싸웠듯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롯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에게도 더욱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준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더욱 준비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아오는 모든 어린이들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